

# 염태영 수원시장님! 우리의 문화와 공공성을 기업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  
수원시 최초로 건립되는  
화성행궁 앞  
공공미술관 명칭에  
아파트 브랜드가  
웬말입니까  
”

수원시 최초로 건립되는 공공미술관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그 중심인 화성행궁 앞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미술관은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정몽규)이 건축해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미술관입니다.

이 공공미술관의 명칭이 현재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으로 정해지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가 공공미술관의 이름으로 과연 적절한가요?

현대산업개발이 지어준다고 '아이파크 미술관'

미술관을 지어준다는 현대산업개발, 고맙습니다. 비록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불거져 나오는 특혜시비나 기부채납의 형식의 개발이익환수 차원이건 아니건 간에 공공미술관을 지어 수원시에 '기부'한다니 수원시민으로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자니 수원시나 현대산업개발측이나 '순수한 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가성이 아님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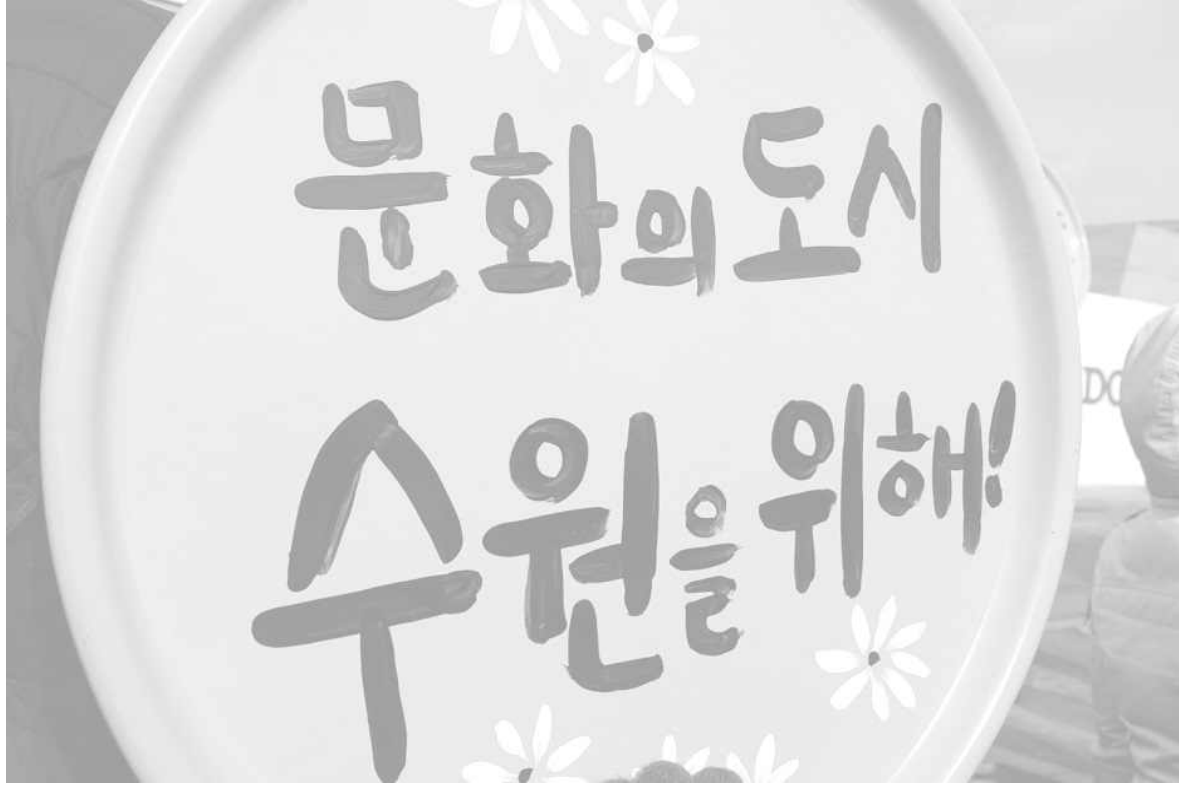
기부란?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기부인가 거래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수원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인 화성행궁 앞에 거대한 규모로

지어지는 미술관은 그 자체가 화성행궁과 더불어 '수원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 문화적 상징물에 '아이파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가는 것을 '기부'라는 명목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걸까요?



기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대가없이 내놓음'이라고 합니다. 수원시와 현대산업개발이 말하는 '순수한 기부'의 뜻을 살리려면 이름 또한 그에 걸맞게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 공공성은 기업과 거래하지 말아야

우리가 사람이나 건물의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름에는 그것의 고유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적' 공간이라면 모를까 만인을 위한 '공적' 공간을 세우면서 그것의 명칭에 기업 브랜드명을 넣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공공성과 기업의 이익은 함께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시 최초로 건립되는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통치철학과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천이 결합된 걸작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 '아이파크' 미술관이라고 하니요.

수원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과거로는 우리의 선조들과 미래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조대 왕께서 화성행궁 앞에 국가의 문화시설을 짓는데 돈 많은 상인이 건물 짓는 비용을 좀 보탤다하여 그 건물 명칭으로 상인이 운영하는 상단의 이름을 쓰셨겠습니까?

### 공공미술관답게

공공미술관은 건축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건축비보다 훨씬 많은 시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이파크 미술관'이 아니라 공공미술관다운 명칭과 운영을 위해 시민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원시에 전화해 의견을 전달해주세요.  
(미술관운영추진단 031-228-3695)  
아래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수원시 최초의 공공미술관 명칭, 제대로 짓기 온라인 서명운동**  
<http://goo.gl/KpKX4d> (오른쪽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갈 수 있어요)

